

	보 도 자 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미래창조 금융• 따뜻한 금융• 튼튼한 금융
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	
책 임 자	이형주 과장(2156-9870)	담 당 자	김태훈 사무관(2156-9873) 고선영 사무관(2156-9875)
배 포 일	2015.7.3.(금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2매

제 목 : 임종룡 금융위원장, 제9차 「금요회」 개최

- 금융투자상품 투자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

- 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, 매주 금요일(조찬)마다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는 자리인 「금요회」를 운영
- ☐ 금일 아홉 번째 「금요회」에서는,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현황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함
 - 특히,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ELS, MMF 등 금융투자상품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고려하여,
 - 금융투자상품 투자현황 및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
- ☐ 참석자들은,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,
 - 레버리지 비율 규제, NCR 등 발행사 건전성 관리, MMF 등 주요상품에 대한 규제수준 등을 고려할 때 리스크 수준이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하였음

□ 다만, 특정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규모 및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,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됨

- ① 금리, 주가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변할 경우 시장리스크 확대 가능성
- ② 상대적으로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지는 금융투자상품 특성상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할 가능성
- ③ 또한, 해외 증권 및 지수에 연계된 상품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, 미국 금리인상 및 유럽발 불확실성 증가 등의 대외환경 변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

□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가 저성장·고령화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중위험·중수익 투자대안처로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언급하고,

- 향후 경쟁력 있는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어야만,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하면서도, 일부 상품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
- 이에 따라, 다양한 상품의 개발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,
-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도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리스크 수준에 대해 서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

< 제9차 「금요회」 개요 >

■ 일시/장소 : 2015.7.3.(금) 07:30~08:40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

■ 주요 참석자

- (금융위) 금융위원장, 자본시장국장 등
- (전문가)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,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, 전균 삼성증권 이사, 이철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사장, 이중호 유안타증권 수석연구원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